

꼭 막힌 공무원연금 개혁 돌파구 찾나

여야, 재정추계 모형 진통 끝 극적 확정

전공노, 문재인 면담 요구 새정치 당사 농성

공무원연금 개혁의 토대 격인 재정추계 모형이 진통 끝에 합의되고 야당이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 일부를 공개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대표자회의에서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는 봤다고 하니 오늘 야당에서 내놓은 틀(개혁 방식)과 우리가 제안한 3가지 안(새누리당, 정부,

고려대 김태일 교수안)을 추계 모형에 정리하면 충분히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공개했다.

이 안은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는 보수개혁 성격을 가미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여율·지급률 조정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45~1.70%로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비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재직자는 10% 신규자는 4.5%	공무원연금 기여율	7% (공무원노조의 합의에 10%까지 인상 가능)	
신규자 기준 1.0%	지급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1.45~1.70%	
45% 내외	소득대체율	50%대 초반	

아진 50%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령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액 연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나

짜는지 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해준 부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당에서 답변을 내놓지 않자 그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문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정상에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60%’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선 현장

조영택 “U대회 경기장 사후활용방안 적극 강구”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는 25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D-100 기념식 및 홍보단 출정식’에 참석해 “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 이후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별·연령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 엘리트체육과의 동반 발전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국립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천정배 무소속 예비후보는 25일 “국립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 무소속 천정배 예비 후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천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는 광주교도소가 이전하는 10만8000㎡ 부지에 설립될 것이다”면서 “강의를 통해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교육할 것이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새정치연합이로는 절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광주 서구에서 시작된 변화는 호남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함께 정권 창출의 길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反)새정치연합 후보단일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동연 전 국회의원은 25일 서울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서 광주 시민이 변화를 선택한다면 야권의 지형 변화와 함께 정권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광주 시민의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 무소속 천정배 예비 후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천 의원은 “현재의 새정치연합이로는 절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광주 서구에서 시작된 변화는 호남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함께 정권 창출의 길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反)새정치연합 후보단일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염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안함 타격후 北잠수정 도주”

문재인 대표 첫 명시적 언급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몰래 들어와서 천안함 공격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의 소행’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표는 이날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 상징대대를 방문, 군 관계자들로부터 부대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탐지해내지 못했다. 사전 탐지가 중요인데, 지금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고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당은 국방예산을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 국방예산은 더 적극 협조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표는 4·29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강화·서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 위원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 “남북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떤 군사적 위협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염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병사 안아준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이 25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제3165부대를 방문, 김정훈 일병을 안아주고 있다. 김 일병은 “추미애 최고위원이 엄마를 많이 닮아서 안기고 싶었다”며 “국 복무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광진, 새정치 전국청년위원장 도전장

“청년문제 해결...사람 키우는 정당 만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광진, 정호준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두 명을 포함해 6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청년 예산 및 정책 확대, 청년 인재양성, 청년 정책실현, 지방중심 현상운영 강화 등 청년 5대 공약과 1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순천 출신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키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청년 및 비례대표로서 지난 3년 동안 청년의 입장을 대변한 데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위원장 선거인단은 청년 대의원과 청년 권리당원으로 구성되며 경선은 다음 달 1~3일 권리당원 ARS 투표와 4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실시된다.

김 의원은 25일 청년 정치참여 확대,

후보는 김광진, 정호준 의원과 원외의 강성봉, 장성태, 이동학, 정기열씨 등이 다. /염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근

해관 장두석선생 민족통일장

겨레의 어른 故 장두석 선생의 민족통일장을 아래와 같이 거행함을 삼가 알립니다.

조

●발 인 : 2015년 3월 28일 07시(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영결식 : 2015년 3월 28일 10시(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빈 소 :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전화 : 062)220-3352, 062)220-3353
 ●장 지 :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유 족
 ·부인 : 김동례 ·아들 : 장영철, 머느리 : 신민숙 ·손자 : 장대근, 장남주

●장례위원장 : 정현찬 차명석
 ●집행위원장 : 김용재
 ●집행위원 : 김동성, 김민주, 김용이, 김주민, 라상채, 박성이, 서동국, 송준석, 이민자, 이병식, 이상룡, 이선재, 임동윤, 황일봉

●고 문
 기세문, 김삼용, 김자동, 문병란, 박동준, 박선홍, 박창균, 백기완, 서한태, 송기숙, 안진오, 암도스님, 염홍섭, 오종열, 이규형, 이기홍, 임기석, 정구선, 정재호, 조명재, 조비오신부, 최상국, 하성래, 함세웅신부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민족생활관·생명살림운동·해관문화재단
 강대택, 강호들, 박길성, 강창룡, 고정숙, 기경서, 기병서, 김광자, 김귀례, 김동휘, 김명자, 김명혜, 김석순, 김승기, 김연숙, 김인각, 김인술, 김정호, 김제일, 남궁단, 모명주, 민형기, 박성이, 박숙정, 박영덕, 박영주, 박점이, 박춘자, 박현미, 배정환, 서수미, 손 진, 송년수, 윤창자, 은옥순, 이경재, 이경희, 이동신, 이수덕, 이은실, 이정근, 이종수, 이취경, 이필규, 인병문, 임달성, 임은자, 임주섭, 임형근, 장동욱, 전수열, 전해원, 정미경, 정성애, 정영숙, 정재강, 정진호, 조기명, 최방원, 최영애, 한경숙, 허현희

●중고계 : 김봉기신부, 도법스님, 명진스님, 문규현신부, 법륜스님, 법선스님, 이상호신부, 이철우목사, 이해학목사, 임락경목사, 청우스님, 현지스님
 ●고향·문중 : 권형란, 김삼근, 김연주, 김중남, 김창룡, 오병식, 오정도, 이민기, 이시근, 장봉희, 장석용, 장성환, 장여환, 장영래, 장 주, 장태평, 정영기, 조규봉, 조우석, 조주환, 천금용
 ●민중사회계 : 김갑주, 김양래, 김인주, 김정길, 김종재, 배종렬, 신원순, 오병윤, 위인백, 이강, 이규재, 이종일, 임동규, 임락평, 임현영, 정동년, 최 열
 ●농민·노동계 : 강기갑, 문경식, 문재원, 윤규병, 정재돈, 한원식
 ●정·관계 : 강운태, 구종근, 김재균, 박주선, 박준영, 안승문, 윤영복, 윤장현, 이길재, 이낙연, 이부영, 이용섭, 이태복, 이학영, 장병완, 장영남, 장영남, 정경채, 정동영, 채수창
 ●법 조 계 : 김승고, 김 현, 이민우, 정태세, 조계선, 최병근, 최병모, 황종국
 ●경 제 계 : 권중화, 김상덕, 김춘동, 박 석, 서금성
 ●교육·학계 : 강정규, 김광복, 김한성, 나간재, 백금열, 송문재, 신영복, 이애주, 이용중, 이윤선, 이정배, 임재택, 임재해, 정규철, 조규춘, 장만채, 장희규, 최일우
 ●언론·출판계 : 강진옥, 광병찬, 권오혁, 김승근, 박정모, 박해진, 배명재, 이용환, 이창기, 정일용, 정주덕, 정후식, 주용진
 ●문화·예술계 : 김양균, 김준태, 김한민, 라 갑, 박봉규, 신상철, 이민영, 이은석, 장사익, 장원석, 황용년
 ●의 료 계 : 김만수, 김민호, 김진주, 김형진, 노금성, 윤효석, 임영석, 장경자, 전홍준, 최옥병, 최희석
 장례위원 명단(가나다순)

해관 장두석선생 민족통일장 장례위원회

※조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